

## 자동차 실내 공기, 제대로 알고 관리하자!

본격적이 더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뜨거운 캘리포니아의 태양에 노출된 자동차 실내는 열기가 가득하다. 그만큼 운전 중 자동차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도 늘었다. 그런데 차량 에어컨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미지근한 바람이 나온다면 불쾌한 감정이 들기 심상이다. 자동차 실내 공기를 결정하는 공조 에어컨 관리 방법을 잘 알아둔다면 더욱 쾌적한 운전을 즐길 수 있다.

### ■ 공조 장치란?



차량 내·외부의 공기는 자동차 공조 장치를 통해 유입된다. 자동차 공조 장치(HVAC)는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의 약자로 단순히 에어컨과 히터의 기능을 하는 것만이 아닌 외부 공기가 차 내로 유입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조 장치는 차 안의 온도 조절 외에도 공기의 흐름, 습도, 청정도 등을 유지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조 장치는 외기 순환과 내기 순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은 역할과 사용 방법이 구분되어 있다.

### ■ 외부의 먼지와 악취 차단, 내기 순환!



내기 순환은 외부 공기의 유입 없이 차량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차량 내부 에어컨 필터를 통해 공기를 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내기 순환은 차량 내부에 있는 공기로만 순환을 해 외부의 먼지나 가스, 악취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내기 순환 모드로 장시간 주행 시 차량 내부에는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되어 곧 차량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고 운전자에게 즐음과 두통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기순환을 하더라도 주기적

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 ■ 외기 순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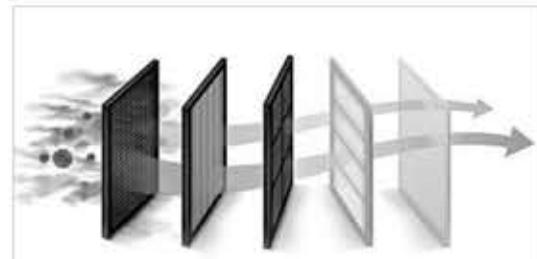


내기 순환의 반대의 기능을 하는 외기 순환은 에어컨 필터를 통해 외부의 공기를 유입

시킨다. 달리는 차량 내 내기 순환 모드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즐음과 두통이 몰려온다면 빠르게 외기 순환 모드로 전환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유의할 점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이기 때문에 폐적한 도로를 달릴 때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외기 순환 모드를 설정해놓은 상태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에어컨 효율이 50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 에어컨 필터의 중요성



내기 순환과 외기 순환의 기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다. 바로 에어컨 필터다. 에어컨 필터는 자동차의 마스크라고도 불린다. 에어컨 필터가 중요한 이유는 외기든 내기든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가 전부 에어컨 필터를 거치기 때문이다.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미세 먼지 등 유해한 물질들은 에어컨 필터를 통해 걸러진다. 사실상 에어컨 필터가 모든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고효율 프리미엄 필터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 ■ 에어컨 필터 관리는 어떻게?

먼지를 잘 거르는 에어컨 필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를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에어컨 필터라



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터 자체의 능력이 저하되어 오염 물질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게 된다. 또한, 필터 내에서 세균, 곰팡이 등이 번식하여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먼지가 공기의 흐름을 막아 통풍을 방해할 수도 있다.

에어컨 필터는 통상 6개월 또는 6,000~7,000마일 주행 시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모래나 먼지가 많은 지역을 주행했다면 수시로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

### ■ 에어컨 사용 습관에 따라 차량 공기 질이 다르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 차량 내 에어컨 사용 습관을 체크해 본다.

'내부 순환'으로만 설정해 사용하면 악취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에어컨 사용 중에도 틈틈히 '외부 순환'으로 바꿔서 신선한 바깥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에어컨을 끄기 전에 내부 습기를 충분히 말리는 게 중요하다. 에어컨을 켜 상태에서 시동을 바로 끄면 에어컨 증발기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서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목적지 도착 5분 전에 에어컨을 끄고 송풍으로 바꿔서 냉각판을 말리면 곰팡이 생성을 예방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 Kyung Sook Yu, D.D.S

###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6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